



50년대 북한의 곡물 생산량 통계에 관한 연구

-농업으로부터의 경제 잉여 추출과 관련하여-

서동만

서울대 강사, 정치학 박사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은 널리 알려진 지 오래지만 그 실태의 구체적인 파악을 위한 공식적인 곡물 생산량 통계는 현재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 당국이 곡물 생산량 통계를 공표하지 않게 된 기점은 1964년이며, 그 배경은 곡물 생산의 정체나 대외 정세 변화에 따른 경제 노선의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의 작용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1964년까지의 공식 통계가 갖는 정치적·경제적인 의미의 추적 작업은 현재의 곡물 생산량 추정의 기초 자료뿐만 아니라 북한의 사회주의 개조 과정에서 농업의 역할 및 農工間의 관계 파악에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1951년부터 1964년경까지의 곡물 생산량 통계의 변동 과정을 당시의 경제 발전 노선이나 농업 정책을 둘러싼 지도부 내의 갈등과 관련시켜 추적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의 戰後 경제 발전 노선 및 농업 집단화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곡물 수확량 통계 변동 과정을 추적해본 결과, 북한은 戰後 3개년 경제복구 발전계획이나 제 1차 5개년계획을 통해서 농업으로부터 상당 부분의 경제 잉여를 추출해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곡물 수매 사업과 관련된 언술들을 분석해보더라도, 이것은 당시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도 당연시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 급기야는 북한 당국이 남한 당국과 일본에 쌀의 제공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이 널리 알려진 지 오래지만 그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공식적인 곡물 생산량 통계는 현재로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 당국이 곡물 생산량 통계를 공표하지 않게 된 기점은 1964년이며, 그 배경에는 곡물 생산의 정체나 대외 정세의 변화에 따른 경제 노선의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1964년까지의 공식통계가 갖는 정치적·경제적 의미를 추적하는 작업은 현재의 곡물 생산량을 추정하는 데 있어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북한의 사회주의 개조 과정에 있어서 농업의 역할이나 농·공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즉, 50년대부터 60년대 초까지의 곡물 생산량 통계의 변동을 둘러싼 정치 과정은 북한의 농업 집단화의 성격이나 공업화 과정에

문제의 제기

19 95년 북한에는 엄청난 수해가 발생하여 곡물 생산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

* 이 글은 필자의 일본 동경대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北朝鮮における社會主義體制の成立, 1945~1961」(1995.9)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한 것이다.

있어서 농업으로부터의 경제 잉여 추출 여부를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

북한의 곡물 생산량 통계는 한국전쟁 이전까지는 절대 숫자까지 정상적으로 공표하였지만 전쟁 발발 이후인 1951년 통계부터 이상을 보이기 시작, 1957년에는 그간의 통계가 확정되기까지 심한 변동을 보였다. 이는 농업 정책을 둘러싼 지도부 내의 갈등을 반영하고 있었다. 1957년 2월 22일 국가계획위원회중앙통계국 보도 '1954~56년 전후 인민 경제복구발전 3개년 계획 실행 총화'에서 1946년 이래 1956년까지의 곡물 통계가 완전히 확정된다. 전쟁 시기부터 이때까지는 매년의 곡물 총수확고에 대해서는 전쟁 전이나 전년도와의 대비 등을 나타내는 상대 숫자만을 공표하고 그 절대 숫자에 대해서는 일체 공표하지 않았다. 매년도의 곡물 총생산고의 실적이나 장래의 목표 숫자는 농업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결정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당시의 시점에서 취했던 통계를 추적하는 작업은 농업 정책의 성격을 가늠하는 데 기초가 된다. 특히, 매년의 농작물 실수확고 판정에 입각한 농업 현물 세제를 채택하고 있던 1955년까지는 곡물 총생산고는 현물세의 징수액과 직결되었던 만큼 정치적·정책적으로 민감한 쟁점이었고, 농업 집단화의 템포와 관련하여 지도 부내의 정치적 갈등과 얽혀있던 문제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작황이 좋을 때는 전년도에 비해 몇 퍼센트 또는 몇 톤 증가로

발표하지만, 좋지 않을 때는 수년 전의 기준 연도와 비교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상대 숫자의 표시 방식이나 기준 연도가 때때로 변하고 김일성의 발언을 통해서 공표된 숫자는 수록 자료의 간행 시기에 따라 내용이 개찬되는 경우도 있어, 그 확정 작업에는 많은 곤란이 따른다. 또한 1957년에는 이전까지의 곡물 생산량 통계를 확정짓고 나서도 다시 숫자가 폭주하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며 이러한 흐름이 결국은 곡물 생산량 통계를 공표하지 않는 상태로 이어지게 된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일찍이 이정식, 스칼라피노의 저작에서 비교적 계통적으로 분석되었지만, 주로 경제적 측면에만 한정해서 1957년 이후의 시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이전의 시기도 물론 전체적인 정치적 배경이나 농업 정책과의 관련에 대해서는 추적하고 있지 못하다.¹⁾ 이 글에서는 1951년부터 1964년경까지의 곡물 생산량 통계를 당시의 경제 발전 노선이나 농업 정책을 둘러싼 지도부 내의 갈등과 관련시켜 추적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의 전후 경제 발전 노선 및 농업

1) 곡물 통계의 확정치에 대해서는 「1954~56년 전후 인민 경제발전 3개년계획 실행 총화에 관한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 보도」, 「경제 건설」, 1957. 3, p. 85~86, 「조선중앙년감」, 1958년판, p. 196. 이 통계에 대한 논의로서는, 이정식, 스칼라피노, 한홍구의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 제3권, p. 666, Lee & Scalapino, *Communism in Korea*, vol.2, pp. 1089~1099, 1111~4.

집단화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기점으로서의 전시 곡물 생산량 통계

전쟁 발발 이후 최초로 곡물 수확고가 공표된 것은 1952년 12월 15일에 열린 당중앙위원회회의에서 행해진 김일성의 보고를 통해서였다. 「조선중앙년감」 1953년판과 1954년판 「김일성선집」 제4권에 수록된 보고 텍스트에서는, 김일성은 1952년도의 곡물 총수확고는 1951년에 비해 113%로 증가했고 이는 1951년에 비해 34만 톤의 증산이며, 전쟁 전의 최고 수확 년도인 1948년에 비해 13만 톤의 증산이라고 말하고 있다. 「조선중앙년감」 1951~52년판에는 전쟁 전의 곡물 통계가 발표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1952년도는 293만 9,000 톤, 1951년도는 260만 1,000 톤이 된다.²⁾ 1953년 2월 8일 조선인민군 창건 5주년 기념식전에서 민족보위상 최용건도 연설 속에서 이 숫자를 인용하고 있는 사실로부터 당시 이 숫자가 통용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³⁾ 그러나 戰時期의 파괴 상황을 고려하면 이것은 너무도 높은 숫자였다. 이 총수확고의 숫자가 농민의 노동의욕을 높이기 위한 선전 목적 이외에도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전시 상태에서 현물세 징수의 기준이 되었음을 의심할 수 없을 것이다.

전쟁이 휴전되고난 직후 1953년 8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전후 인민경제복구발전 3개년계획에 관한 보고를 행하였지만, 중공업 증시 노선을 기조로 하는 그의 보고는 당내의 반대에 부딪쳐 통과되지 못했다. 중공업 증시 노선과 맞물려서 농업 협동화 실시 방침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⁴⁾ 그런데 문제는 당시 농업 정책의 기준이 될 1953년 곡물 총수확고에 대해서는 연말까지도 일체 공표하지 않았던 점이다. 농업 집단화를 포함해서 농업 정책을 둘러싼 당내 대립으로 인해 미묘한 의미를 갖는 곡물 총수확고 통계가 확정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곡물 수매 사업과 곡물 생산량 통계의 부풀림

3개년계획안은 1954년 3월 23일 최고 인민회의에서 '1954~56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경제복구발전 3개년계획에 관한

2) 「조선중앙년감」, 1951~52년판, p. 347, 357. 1945년도 218만 7,000 톤, 1946년도 199만 8,000 톤, 1947년도 217만 8,000 톤, 1948년도 280만 9,000 톤, 1949년도 279만 5,000 톤이다. 이 숫자를 퍼센티지로 역산해보면 1951년도 261만 5,000 톤(34만/13%), 1952년도 295만 5,000 톤이 되어 거의 일치한다.

3) 최용건, 「조선인민군 창건 5주년 기념 보고」, 「인민」 1953년 2월, 「조선문제연구」 1953년 제6호에 수록, p. 53. 1953년도의 곡물 생산 목표는 1952년의 105%로 잡고 있다.

4)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줄고 「北朝鮮における社會主義體制の成立 1945~61」, 동경대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1995년), pp. 398~399 참조.

법령'으로서 채택되었다. 이 가운데에서 계획 목표인 1956년 곡물 생산량은 1949년에 비해 19% 성장으로 전망되었다. 이 법령이나 그 초안에 해당하는 국가계획위원장 박창옥의 보고 중에서는 그 절대 숫자는 나오지 않지만, 「조선중앙년감」 1951~52년판의 숫자 279만 5,000 톤을 기준으로 하면 332만 6,000 톤이 된다. 당시 일반적으로는 330만 톤으로 통용되고 있었다.⁵⁾ 법령의 기초가 된 박창옥의 보고 내용 중 중요한 사실은 1953년도 곡물 총생산고에 대해 최초로 언급, 그 절대 숫자는 밝히지 않았으나 그것이 1949년에 비해 저하했다고 말한 점이다. 전쟁 전의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279만 5,000 톤을 밑도는 숫자가 된다. 1953년도 곡물 생산고 통계는 미묘한 의미를 띄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기준 연도로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었던 전쟁 전의 곡물 총생산고에 관련한 숫자도 3개년계획 채택 직후 발표되고 있다. 1954년 5월 「근로자」에 게재된 유명한 농업 경제학자 김한주의 논문에서는 곡물 생산고에 있어서 1946년을 100으로 하면 1947년 109%, 1948년 140.6%, 1949년 139.9%로 성장한

것으로 되어 있다.⁶⁾ 이것은 일단 전쟁전 수준에 관해서는 3개년계획이 채택되는 시점에서 시도부 내의 잠정적인 합의가 얻어졌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1954년 10월이 되어 돌연 1953년도의 곡물 총수확고에 관한 숫자가 등장하였다. 국가계획위원회의 국장인 남인호의 논문이 「인민」誌에 게재되어 1953년의 곡물 총수확고는 1951년에 비해 126.4%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1953년 생산고에 대해 당시 발표된 유일한 통계 숫자로서 앞에서 언급한 기준 연도의 통계에 변화가 없었다면(1951년 260만 1,000 톤), 328만 8,000 톤을 생산한 결과가 된다.⁷⁾ 3개년계획에 관한 박창옥의 보고를 뒤엎는 숫자이며 정책적 의도가 개재되어 있음이 틀림없었다. 박창옥의 숫자는 279만 5,000 톤 미만이므로 무려 50만 톤 이상의 차가 생긴다. 이것은 당시 농업 정책의 전환과 관련된 변동이었다.

1954년 11월 3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려 농업 협동화의 대중적 전개와 곡물 수매사업의 실시가 결정되었다. 이 회의에서 보고를 담당한 부수상 겸 농업상 김일은 1954년의 곡물 생산은 동해안 지방의 자연 재해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에서 수확고가 증가하여 계획이 거의 달성되었고, 기후 조건이 좋았다면 계획을 훨씬 초과했을 것이라고 전제한 다

5) 「1954~5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 경제발전 3개년계획에 관한 법령」, 박창옥 「1954~5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 경제발전 3개년계획에 관한 보고」, 각각 「인민」, 1954년 5월, pp. 3~30, 37~66. 3개년계획 법령에서 개성과 평양을 제외한 지역의 생산 과제를 집계하면 326만 9,000 톤이다.

6) 김한주, “농촌 정리 발전은 전후 경제 건설의 중요한 고리”, 「근로자」, 1954. 5. p. 112.

7) 남인호, “조국의 융성 발전을 위한 공화국의 경제 발전”, 「인민」, 1954. 10. p. 41.

음, 1955년도의 총수확고를 3개년계획의 말(1956년)에 예정된 330만 톤을 넘어서 360만 톤 이상으로 증가시켜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서에서는, 최근의 1~2년 내에 곡물 총수확고를 전쟁 전의 최고 수준에 비해 적어도 40% 이상 증가시켜야 될 것이라고 그 표현이 바뀌었다.⁸⁾ 기간을 1년 길게 잡고 있지만 절대 숫자로 계산하면 360만 톤보다 부풀어 오른 무려 393만 3,000톤이 된다. 앞에서 언급한 남인호의 숫자가 김일의 숫자의 근거가 되었음은 의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360만 톤이란 명백한 절대 숫자의 목표가 명시되지 않게 된 것은 미묘한 변화였다. 곡물 통계와 관련하여, 이점이 표명되었으나 이를 흡수하면서 방침을 관철시키려 했던 데서 생긴 결과일지도 모른다.

1953년도 곡물 생산량 통계가 부풀려져서 발표된 것은 이때 개시되는 국가에 의한 곡물

수매 사업에 있어서 수매량의 근거가 되는 1954년도 생산량을 확정짓기 위한 기초 작업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곡물 생산량의 부풀림에 근거한 수매 사업은 1954년 말과 1955년 초에 걸쳐 농민 대중의 반발에 부딪쳐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⁹⁾ 따라서 1954년 말까지도 1954년도 곡물 생산량 통계는 공표되지 않았다.

1955년 1월 7일에 열린 전국 다수확 모범 농민 대회에서 당농업부장 박훈일은 1954년에는 불리한 기후 조건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에서의 순조로운 작황에 따라 1953년에 비해 20만 톤의 곡물을 증수했다고 보고하였다. 그는 3개년 인민경제복구발전계획에 예정된 곡물 생산 목표 330만 톤을 1955년도에 '초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김일이 당초 제시했던 360만 톤이라는 목표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330만 톤으로 내려 잡은 것은 분명하였다. 박훈일의 보고는 3개년 계획에 제시된 1956년 목표를 1955년으로 앞당겨 초과 완수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목표를 수행한다는 데에는 언급하지 않았다.¹⁰⁾ 다만, 1955년도의

8) 김일 "농촌 경리의 급속한 복구 발전을 위한 모동당의 급후 투쟁 대책에 관하여-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1954년 11월 전원 회의에서의 보고", 『로동신문』, 1954. 11. 4. 戰時期에는 퇴보한 것이 아니라 전쟁 전의 수준을 견지했다고 주장. "농촌 경리의 급속한 복구 발전을 위한 모동당의 급후 투쟁 대책에 관한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11월 전원 회의결정", 『인민』, 1954. 12. 항일 빨치산 출신의 유능한 행장가였던 김일은 김일성의 뜻을 대변하면서 급진적인 농업 집단화 노선의 추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집단화의 템포를 둘러싸고 김일은 구소련계의 국가 계획 위원장 박창옥과 대립하고 있었고 인안계의 당농업부장 박훈일도 비교적 온건한 집단화 방식을 지지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9) 당시의 곡물 수매 사업 및 집단화 정책과 관련하여 1954년 11월 당중앙위 전원회의가 갖는 의의에 관해서는, 송호 「北朝鮮における社會主義體制の成立」, pp. 402~408 참조.

10) 『로동신문』, 1955. 1.28.

330만 톤이라는 목표는 남인호가 발표하여 김일이 제시한 목표의 근거가 된 1953년도의 328만 8,000 톤이라는 실적을 부정한 결과가 된다. 이미 1954년 12월부터 곡물 수매 사업에서 생기고 있던 혼란이 이 숫자 속에는 반영되었던 것이다.¹¹⁾

이와는 달리 「로동신문」 1955년 1월 7일자에 실린 전국 다수확 모범 농민 대회과 관련한 사실은 당중앙위원회회의의 결정 즉, 1~2년 안에 곡물 생산고를 전쟁전 최고 수준에 비해 40% 이상 증가시킨다는 것을 강조하고 3개년계획의 목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¹²⁾ 표면적으로는 다수확 농민 대회에서의 박훈일의 발언과는 배치되는 논조였다. 동시에 같은 일자의 「로동신문」에는 “3개년계획의 실행에 있어서 결정적 연도인 1955년의 농촌 경리 부분의 과제는 어렵지만 중요하다”고 하면서 “당중앙위원회 11월 전원회의의 결정대로 1~2년 내에 곡물 생산고를 전쟁전 최고 수준에 비해 40% 이상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설도 게재되었다.¹³⁾ 이는 박훈일과 김일의 목표를 절충시키려는 논조

였다. 당과 정부 내에 의견의 대립이 생긴 것은 분명하며 일련의 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1955년도 곡물 생산 목표의 절대치가 정식으로 공표된 것은 아니므로 목표가 330만 톤과 360만 톤의 어느 쪽으로 설정되었는지는 확정할 수 없다.

그후 농업부상 박문규는 「경제건설」 1955년 3월호에 1955년도 곡물 생산 과제는 1949년에 비해 118.2%로 설정했다고 쓰고 있다. 이것은 3개년계획의 최종 목표인 1949년도 대비 19% 성장이라는 수치를 밑돌고 있다. 당시 통용되고 있던 1949년 생산량 280만 9,000 톤을 기준으로 역산하면 330만 4,000 톤이 된다.¹⁴⁾ 이 시점에는 박훈일이 제기했던 3개년계획의 목표로 다시 되돌아간 것이 분명해진다.

이처럼 1955년 목표가 변동하고 있던 만큼 그 기준이 되는 1954년의 실적에 관한 통계도 흔들리고 있었다. 우선 1월 7일에는 1955년도 농촌 부문 경제 계획에서 곡물 생산 과제는 1954년도 실적에 비해 112.1%로 성장한다고 전망하였다.¹⁵⁾

그런데 1월 25일자로 국가계획위원회 중앙

11) 1954년 11월부터 개시된 곡물 수매 사업에 대해서는 앞의 논문, pp. 403~408, Lee & Scalapino, *Communism in Korea*, Vol. 2, p. 1059에 나오는 김남식의 증언, 어정, 「불개 불는 대동강」, 동아일보사, 1991, pp. 57~62 등을 참조.

12) 「로동신문」, “전국 다수확 모범 농민 대회”, 1995, 1.7.

13) 고창운, “1955년 농촌경리의 전망”, 「로동신문」, 1995, 1.7.

14) 박문규, “우리나라 농업 생산의 가임층 고양을 위하여”, 「경제건설」, 1955, 3, p. 15. 1948년에 비해 117.8%이다. 백홍권, “1956년 인민 경제 계획의 정확한 작성을 위하여”, 「경제건설」, 1955, 10, p. 16.

15) 고창운, “1955년 농촌 경리의 전망”, 「로동신문」, 1955, 1.7.

통계국이 보도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경제복구발전에 있어서 1954년 국가 계획 실행 총화’에 의하면 1954년도 곡물 총수확고는 1953년에 비해 3%가 증가했다고 되어 있다.¹⁶⁾ 어느 쪽도 1954년을 포함해서 1953년 수확고의 절대 숫자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나중에 확정된 1955년의 목표 숫자 330만 톤을 기준으로 역산하면 1955년 1월 7일 당시까지 공식적으로 취하고 있던 1954년도의 총수확고는 294만 1,000 톤이 된다. 같은 시점에 이루어진 박훈일의 보고에 기초해서 계산하면(20만 톤을 빼면) 1953년도의 수확고는 274만 1,000 톤이 된다. 그러나 이 숫자를 기준으로 1955년 1월 25일 국가계획위원회의 보도대로 1954년의 수확고가 1953년에 비해 3% 증가했다고 하면 그것은 282만 3,000 톤이 된다. 요컨대 1월 7일의 시점에서 박훈일은 1954년 곡물 수확고를 294만 1,000 톤으로 잡고 있었던 데 반해 25일의 시점에서 국가계획위원회는 282만 3,000 톤으로 바꾸고 있다. 이 곡물 생산량 통계의 문제는 1955년 2월 2일의 당

중앙상무위원회 및 4월 4일의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곡물 수매 사업의 오류와 함께 공식적으로 거론되어 비판되고 있다.¹⁷⁾

오류 및 책임 소재의 추궁 문제

1955년 4월 당중앙위 전원회의 직후 내각 결정 제37호 ‘1955년 농촌 경리 부문 인민경제발전계획을 변경할 데 관하여’가 나와 농촌 경리 부문 지도 간부들이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많은 결함을 범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1955년도 곡물 생산량 목표가 수정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 내용은 공표되지 않았다.¹⁸⁾ 나아가 1955년 4월 이후 전시 및 전후기의 곡물 수확고에 관한 통계는 일체의 공식 매체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대신 “농촌 경리는 아직 극심한 전쟁 피해로부터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급속히 성장하는 공업의 발전 속도에 멀리 뒤떨어져 있으며, 증대하는 국내의 식량 및 공업 원료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설명이 붙게 되었다.¹⁹⁾ 공업 생산은 이미 1954년에 전쟁 전의 1949년 수준을 능가했는데 농업 생산은 아직 그 수준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시인하게 되었다.²⁰⁾ 인민경제발전 3개년계획의 농산 부문에 있어서 전

16) 「로동신문」, 1955. 1.28.

17) 이 회의들에서 행한 김일성의 발언 텍스트는 전부 곡물 통계를 둘러싼 쟁점이 당내에서 정리된 이후에 공표된 것으로서 이들 텍스트에 나오는 숫자들은 전부 나중에 개찬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간단히 언급하였다.

18) 리용석, “농촌 경리 부문 인민 경제 계획화 사업”, 「인민」, 1955. 8. p. 50.

19) 최영일, “농촌 경리에 대한 당적 지도 수준을 높이기 위한 몇가지 문제”, 「근로자」, 1955. 9. p. 24.

20) 김한주, “공화국 북반부에 있어서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근로자」, 1955. 10. p. 37.

제 목표는 아직 유지되고 있었지만 3개년 계획의 곡물 총생산고 목표를 당초의 1955년이 아니라 1956년에 달성한다는 전제 아래 1955년 목표는 하향 조정되었던 것이다.²¹⁾ 그러나 다시 수정된 1955년 목표치도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었다.

1955년 10월 21일 열린 당·정권 기관 일꾼 회의에서 행한 김일성의 연설이 1980년판 「김일성저작집」 제9권에 수록되어 있다.²²⁾ 이 회의는 1955년 경제 계획의 실행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과 1956년 경제 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과제를 토의하였다. 김일성은 공업, 농업을 비롯해서 산업 전반에 걸쳐 1955년 인민 경제 계획을 비판하고 특히, 1955년 계획 목표를 과도하게 높이 책정하여 예정 목표를 실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국가계획 위원장을 공격했다. 계획 실패의 하나의 예로서 농업 계획을 거론하여 330만 톤의 곡물 생산 목표는 조건과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책상 위에서 세운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김일성의 비판 대상이 되는 국가계획위원장은 소련계의 박창욱으로서 전후 경제 발전 노선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비판은 1955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의로 이어지면서 12월 말의 사상 사업에 있어서 ‘주체’ 문제의 제기 및 소련계 비판으로 발전한다.

다음해의 경제 발전을 작성하는 시기인 1955년 10월경부터 1955년 계획에 대한 비판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게 되었다. 1955년 생산 목표를 전쟁전 최고 수확년도인 1948년에 비해 117.8%로 설정한 것은 심각한 과오였다는 내용이었다. 즉, 1955년 농촌 부분 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짧은 기간 안에는 복구하기 어려운 전쟁 피해지와 휴한지를 파종 면적 계획에 포함시키고 또한 1955년 총수확고를 규정함에 있어서도 노력, 축력, 비료 등 영농에 필요한 제조건이 불리한 상태에 놓여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²³⁾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당초의 360만 톤이란 목표가 제시된 사실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수정된 목표인 330만 톤에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점이다.

1955년 12월 2~3일 당중앙위 전원회의가 열려 “1954년 당중앙위원회 11월 전원 회의 결정의 실행 상황에 대하여” 김일이 보고하고 토론이 행해진 후, 김일성의 “중요 발언”이 있었다. 그러나 김일의 보고도 김일성의

21) 박성수, “해방 후 10년간의 공화국농촌경리의 발전”, 「인민」, 1955. 7. p. 21.

22) 김일성, “인민 경제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나타난 갈등과 이를 시정하기 위한 몇가지 과제에 대하여-당·정권 기관 일꾼 회의에서 행한 연설”, 「김일성 저작집」, 제9권, 1955. 10.21, pp. 410~440.

23) 김한주, “공화국 북반부에 있어서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근로자」, 1955. 10, 백홍권, “1955년 인민 경제 계획의 정확한 작성을 위하여”, 「경제건설」, 1955. 10, 김한주는 농업 정책의 입안에 깊이 관여하고 있던 저명한 농업 경제학자이며 백홍권은 국가 계획 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중요 발언도 공표되지 않았다. 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서도 공표되지는 않고 단편적으로 논문이나 논설, 신문 기사에의 인용이란 형태로 보도되었다.²⁴⁾ 회의에서는 1955년 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농촌 현실을 구체적으로 타산하지 않고 주관주의적 욕망에 사로잡히거나 공명주의에 사로잡혀 계획을 높이 세워 하부에 강요하였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보도 내용으로 보아 농산 계획의 오류에 대한 책임 소재는 명확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박창옥에게 책임을 지우려는 김일의 보고에 대해 박창옥은 김일의 책임이 크다고 반론하여 김일의 보고 내용은 관철되지 못하고 공표도 되지 못했을 것이다. 김일이 후퇴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이 회의에서 농업 집단화의 추진 방식을 둘러싸고 종래의 제3형태를 중심으로 하는 방침에서 개인 농민의 처지를 존중하고 노력 협조반 즉, 제1형태를 확대하는 방침으로 변화한 사실에서 드러난다.²⁵⁾ 농산 계획 오류의 책임 문제는 집단화의 방침과 연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농업 집단화를 강행적으로 추진하

고 있던 김일성-김일의 주류파는 반격에 나서게 되었다. 1955년 12월 20~22일 열린 최고 인민회의 제10차 회의에서 김일이 보고하여 3개년계획에서 농업 부분 생산 과제가 과도하게 높이 설정되어 계획을 실행할 수 없었다고 비판을 가하였다. 그는 3개년계획이 부정확한 통계에 기초하여 전쟁전 수준을 훨씬 넘어서야 한다는 주관적 관점에서 세워져 전시의 피해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계획이므로, 3개년계획의 농촌 부문 계획 목표는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일의 보고에 따라 1956년도 농촌 경리의 계획 과제를 일부 수정, 곡물 총수확고 목표는 273만 톤으로 예정되었다. 게다가 1956년 목표를 수행해도 겨우 전쟁 전 수준을 회복할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²⁶⁾ 이리하여 1956년 계획부터 목표의 기준은 전전 수준의 회복으로 내려 잡게 되었다. 당초 3개년계획의 최종년도 목표 330만 톤에서 약 90만 톤의 삭감이었으나, 1954년 11월 전원회의에서 김일이 제시한 360만 톤으로부터는 90만 톤, 390만 톤으로부터는 무려 120만 톤의 삭감이었다. 비판받아야 할 입장이었던 김일이 거꾸로 공격을 가할 위치에 서 있던 것이 당시의 세력 관계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12월 27일 당선전선동부분 일꾼회의가 열

24) 「로동신문」, 사설 “1956년도 농산 계획의 정확한 수립”, 1955. 12. 10, 권두연 “농촌 경리의 가일층 발전을 위해 지도 사업을 개선·강화하자”, 「인민」, 1956. 1, 박동옥, “농촌 경리의 발전을 위한 당과 정부의 정책”, 「인민」, 1956. 3, 박문규, “농촌 경리의 가일층 발전을 위한 전인민적 과업”, 「경제건설」, 1956, 제1호 등.

25) 농업 집단화 과정에서 이 문제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서는 좋고, pp. 412~414.

26) 「민주조선」, 1956. 12. 21, 장세기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경제건설」, 1956, 제3호, p. 78.

려 문예총위원장 겸 작가동맹위원장 한설야에 의해 문학 부문에 있어서 '사상적 오류'가 거론되어 구소련계의 정 물, 기석복이 비판받았다. 다음날인 28일에는 같은 간부들을 앞에 두고 김일성 자신이 증대한 연설을 행하여 당의 사상 사업이 "교조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지고", "주체가 결여되어 있다"고 단언하였다.²⁷⁾

유명한 '주체'의 제기이다. 김일성은 구소련계의 약점이라 할 수 있는 사상 사업의 분야에서 구소련계를 비판한다는 우회적 방법에 의해 농업 문제에서의 수세를 만회하게 된다. 1956년 1월 박창옥은 국가계획위원장직에서 해임되고 중공업 우선론자인 이종욱에 의해 교체되었다. 이후 농업 집단화 과정에서 제1형태를 중시하는 방침은 철회되고 종래의 방식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곡물 통계의 확정과 이후의 추이

1956년 1월 14일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이 보도한 '1955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 경제 발전 국가 계획 실행 총화'에서는 1955년 곡물 생산고에 대해 서해안 지방

이나 일부 지역에 자연 재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54년에 비해 훨씬 증가"하였지만 "계획은 실행할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²⁸⁾ 하지만 여기서도 1954년과 1955년 실적의 절대 숫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단지, 1956년 2월 시점에 가면 1956년 곡물 총생산고 목표가 1955년에 비해 108.2%, 거의 1949년 수준에 도달한다고 하는 숫자가 발표된다.²⁹⁾ 1955년 12월 당시 제시된 목표 숫자 273만 톤에서 역산하면(273만/108.2%) 1955년 실적은 252만 3,000 톤이 된다.

그러나 1956년 4월 시점에 가면 곡물 총수확고 목표를 285만 톤으로 설정하게 된다. 곡물 생산 목표를 높이는 이유로 "공업 생산은 그 주요 부문에서 1954년에 전전 수준을 능가하였는데 곡물을 비롯해서 일련의 중요 농업 생산물은 아직 전전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³⁰⁾ 곡물 생산 목표를 높이 설정한 것은 다수확 곡물로서 옥수수 재배 면적을 확대하는 정책과 관련되어 있었다. 이는 구소련의 후르시초프가 처녀지를 개간하면서 옥수수 재배 면적을 확대한 정책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다음해인 1957년 곡물 생산 목표로 가게 되면 당초는 1956년 대비 102.5%로 설정되어 있었다.³¹⁾ 절대 숫자는 밝히지 않았으나

27) 연설의 내용에 대해서는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28) 「경제건설」, 1956. 2, p. 138.

29) 백용권, "1956년인민경제계획과 그 완수 및 초과원수를 위하여", 「경제건설」, 1956. 2, p. 18.

30) 한희성 "공화국 농촌 경리 발전에서 조선로동당이 쟁취한 거대한 성과", 「경제 건설」, 1956. 4, pp. 25~26.

1957년 2월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1956년도 곡물 생산고는 287만 톤이므로 1957년도 목표는 294만 2,000 톤이 된다.³²⁾ 그런데 1956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이후 당지도부의 현지 생산 지도에 '고무되어 증산 결의에 나선 노동자들에 호응'하여 1957년 4월경 농업 부문에서는 어느 틈에 당초 계획보다 50여만 톤의 증산이 결의되어 340만 톤이 목표로 설정되어 있었다.³³⁾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방대한 양의 증산을 내건 것은 옥수수 재배 면적의 확대와 관련한 정책적 자신감에도 연유하지만, 무엇보다도 열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가운데 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56년부터는 당초에 정부의 생산 목표가 설정되고 그 목표를 웃도는 농민의 '자발적' 증산 목표가 더해진 다음 정부가 이를 목표로 승인하도록 하는 식으로 이중의 목표치가 정해지게 되었다.

한편, 1957년 2월 22일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이 보도한 '1954~56년 전후 인민경제복구 3개년계획 실행 총화'에 의해 1946년 이후 1956년까지의 공식 곡물 통계가 확

정되었다.³⁴⁾ 전후 곡물 생산량 목표를 터무니 없이 부풀리게 된 근거가 되었던 1951년, 1952년, 1953년의 통계가 대폭 하향 조정된 것이 눈에 띈다. 이러한 수정은 이전보다 비교적 합리적인 농업 정책을 펴기 위한 작업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후의 흐름을 보면 이는 새로운 '폭주'를 위한 출발점에 지나지 않았다. 1956년 8월 종파사건'에서 발단이 된 연안계와 구소련계, 일부 국내계에 대한 숙청이 개시되어 이미 지도부 안에서는 내부적으로 통계의 조작이나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비판 세력이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잘못된 통계가 도중에 수정되거나 과도한 목표가 비판받고 시정되는 예는 거의 없어지게 된다. 1957년 곡물 생산 실적은 320만 톤, 1956년 비 111.4%, 33만 톤 증산으로 발표되었다.³⁵⁾ 다만 추가된 증산 목표와의 관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1958년에도 당초의 국가 계획은 330만 톤으로 설정되었으나 각도 농업 협동 조합 열성

31) 이종욱, "1957년 인민 경제 발전 계획의 성과적 실행을 위한 제과업", 「경제 건설」, 1957. 1. p. 4.

32)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국가 계획 위원회 중앙 통계국 보도 "3개년 인민경제계획실행에 있어서 조선 인민이 쟁취한 위대한 성과", 「로동신문」, 1957. 2. p. 24.

33) 「경제 건설」, 권두언 "경제 사업에 대한 지도를 경제 건설의 새로운 임무에 더욱 접근시키자", 1957. 4. p. 7. 1956년 생산량 대비 약 118%가 된다.

34) 「로동신문」, 1957. 2. 24. 「경제 건설」 1957. 3. 「조선중앙년감」, 1958년판, p. 196. 수정된 통계 숫자는 별표로 정리하였다. 수정된 비율은 전쟁전의 1949년도까지는 일률적으로 5% 정도가 하향 조정되었고 이후의 통계에 대해서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조정되었다. 이러한 조정은 전쟁전에도 곡물 통계에 일정한 정도로 조작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35) 「로동신문」, "1957년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 경제 발전 실행 총화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 통계국의 보도-1958년 1월 18일", 1958. 1.19.

자 대회에서 각 부분의 증산 과제가 결의되어 이를 내각 결정에 따라 승인하는 형태로 곡물 생산 목표는 당초 계획보다 65만 8,000 톤 증산의 395만 8,000 톤으로 설정되었다.³⁶⁾ 다음해 1월에 1958년 총수확고는 “극심한 한 발에도 불구하고” 계획의 112%, 370만 톤(저류도 포함해 계산하면 390만 톤)에 달하였다고 발표되었다. 역사상 최고의 수확고로 대대적으로 선전되었다.³⁷⁾ 계획의 112% 달성은 당초 목표인 330만 톤을 기준으로 한 숫자이며, 이번에도 추가된 목표와의 관련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통계의 수정 확정 이후를 보면 1956년 287만 톤, 1957년 320만 톤, 1958년 370만 톤으로서 절대 숫자에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추세로서 곡물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되었다고는 생각된다. 증가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옥수수 재배 면적의 대대적인 확장에 있으며 그 면적은 1954년의 23만 6,000 정보에서 1958년의 82만 6,000 정보까지 확대되었다.³⁸⁾

1958년 8월에 농업 집단화는 완료되며 곡

물 생산 목표의 설정과 관련된 농업 정책은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게 된다. 집단화가 완료된 이상 그 성과는 곡물 생산 실적의 증대로 ‘입증’ 되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1959년에는 신년사에서 김일성은 “금년은 곡물 생산을 500만 톤 이상에 도달하도록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³⁹⁾ 1월 9일 농업 협동화의 완료를 기념하는 전국농업협동조합대회에서는 김일성의 연설에 의거해서 2~3 년 안에 곡물 생산고를 700만 톤 이상으로 도달시킨다고 결의하였다.⁴⁰⁾ 과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수법이 다시 폭주하기 시작한 것이다. 김일성의 신년사대로 1959년 곡물 생산량 목표는 500만 톤으로 설정되었다.⁴¹⁾ 1958년 생산량 370만 톤보다 무려 130만 톤, 35.1%의 증가를 목표로 한 것이다. 그러나 1959년은 천리마 작업반 운동도 발기되어 북한의 전국 이래 열광적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시기였다. 6월까지 제 1차 5개년계획의 공업 생산 목표 달성에 총력이 경주되어 농업 노동력의 상당 부분도 공업에 투입되었다. 공업 생산의 증대에 맞추어 원료를 공급한다는 이유로 농업 생산의 다각화도 꾀해져 곡물 생산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 해의 곡물 총수확고는 340만 톤으로 발표되었다. 사료 작물 및 공예 작물의 재배

36) 「로동신문」,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1956년 12월 신원회의 결상 실행에 대한 농촌 경리 부분의 사업 총화와 1958년 과업에 대하여-1958년 1월 14일”, 1958. 1.16. 3.27.

37) 「로동신문」, “195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 발전 실행 총화에 관한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의 보도”, 1959. 1.17.

38) 김일성,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농업 협동화의 승리와 농촌 경리의 급후 발전에 대하여-전국 농업 협동 조합 대회에서의 연설”, 「로동신문」, 1959. 1.6.

39) 「로동신문」, 1959. 1.1.

40) 「로동신문」, “전국농업협동조합대회 신원-1959년 1월 9일”, 1959. 1.10.

41) 최고인민회의에서 수매양정상 정성언의 “농업 현분세에 관한 보고”, 「로동신문」, 1959. 2.21.

면적 확장과 관련, 밭 곡물의 파종 면적이 전년보다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되었다.⁴²⁾ 그러나 500만 톤 목표 미달성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다.

1959년 곡물 생산의 저락으로 인한 충격은 커서 1960년의 곡물 생산 목표는 발표되지 않았다. 1960년은 제1차 5개년계획 목표의 조기 달성으로 인한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완충기로 설정된 만큼, 내부적으로는 비교적 조심스러운 목표가 정해져 380만 톤 정도로 머무르게 된다.⁴³⁾ 금후 2~3 년 안의 곡물 생산 목표도 700만 톤에서 300만 톤이나 줄어든 400만 톤으로 수정되었다.⁴⁴⁾ 500만 톤 목표에 실적이 160만 톤이나 미달해도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으므로 700만 톤에서 300만 톤을 줄인 목표 수정에 대해서도 책임은 묻어지지 않았다. 연말에 1960년 곡물 생산 실적은 380만 3,000천 톤으로 발표되었다.⁴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 노동력 배치에 커다란 노력이 기울여지고 인위적으로 대규모로 편성되었던 농업협동조합의 작업반이 자연 부락이나 지역 단위로 개편되는 등 일련

의 정책이 실시되었다. 특히 경지 면적, 파종 면적의 확장, 옥수수 재배 면적의 확대가 대대적으로 추진되었다.⁴⁶⁾ 1958년까지는 저류는 따로 집계되었으나 1959년부터는 저류도 곡물 생산 속에 포함되어 생산량이 증가한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

그러나 농업 생산에서 거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정책은 완화되지 않았다. 1960년 12월 당중앙위확대전원회에서는 1961년의 곡물 생산 목표를 100만 톤 이상으로 증가시키기로 결정했다.⁴⁷⁾ 이것은 공업 생산 목표를 낮게 잡는 대신에 농업 생산을 증시하는 정책의 표현이기는 했지만 비현실적으로 과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식으로 되돌아가는 결과가 되었다. 연말에는 “극심한 한발과 풍수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83만 톤의 곡물을 생산하여 “유례가 없는 대풍작을 거두었다”고 발표되고 “식량을 외국에서 수입하지 않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쌓아 올렸다”고 설명되었다.⁴⁸⁾ 이미 목표 설정의 단계에서부터 1960년에 이어서 청산리 방식의 효과가

42) 「로동신문」, “195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 발전 실행 총화에 관한 국가계획위원회중앙통계국의 보도”, 1960. 1.17.

43) 오선복 “완충기농업정책의 관철을 위한 몇가지 문제”, 「근로자」, 1960. 2.15, p. 27.

44) 「로동신문」, “조선 인민의 민족적 병철 8·15 해방 15주년 경축 대회에서 행한 김일성동지의 보고”, 1960. 6.15.

45) 「로동신문」, “1960년 영농 사업에 대한 조선 중앙통신사의 보도-1960년 11월 18일”, 1960. 11.18.

46) 「로동신문」, 1960. 11. 18, 「로동신문」, “농촌경리 부문에서 청산리 교시의 실행 총화와 1961년도 농업에 대하여: 전국농업열성자대회에서 내각부수상 김일성동지의 보고”, 1960. 12.29, 평안북도, 평안남도, 함경북도에서는 밭 면적의 70% 이상에 옥수수를 재배하게 되었다.

47)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2월 확대 전원 회의에 관한 보도”, 1960. 12.24.

48) 내각 결정 제157호 “농업협동조합경영위원회를 조직할 데 관하여”, 「로동신문」, 1961. 12.24. 김일성 “새해 인사를 드린다”, 「로동신문」, 1962. 1.1.

곡물 생산에서 나타나야만 한다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었다. 100만 톤 증산 목표에 실패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1961년 11월 27일~12월 1일 당중앙위 제4기 제2차 확대전원회의가 열려 1962년도 계획의 중심 과업을 ‘여섯 개 고지의 점령’에 두고,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알곡 500만 톤의 고지’라고 위치지었다.⁴⁹⁾ 1961년의 실적 483만 톤을 전제로 하면 500만 톤이란 목표는 3.5%의 성장에 지나지 않아서 지금까지의 추세로 보면 너무 낮은 숫자였다. 여섯 개 고지의 점령은 공업 부분에서는 완충기의 저성장을 거쳐 고성장으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하였고, 상대적으로 농업 부분의 성장을 낮게 잡는다 해도 지나치게 낮은 목표였다. 이미 곡물 생산의 목표를 계속해서 높게 설정해가는 데에는 실적이 따라 갈 수 없는 한계에 달했다고 할 수 있다. 1962년의 실적에 대해서는 “혹심한 가뭄에 이어서 3 개월 이상 계속된 장마와 4 차례에 걸친 큰 홍수와 태풍, 냉해와 병충해 등의 극히 불리한 자연 조건을 용감하게 극복하여 알곡 500만 톤 고지를 성과적으로 극복했다” 발표되어 “관개 체계와 차산 치수 시설의 위력한 시위로 되고 청산리 정신과 청산리 방법의 위대한 결실이다”라고

설명되었다.⁵⁰⁾

1961년부터 식량 자급의 토대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은 식량은 여전히 수입되고 있었다. 실제 어느 정도까지 접근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알곡 500만 톤 고지는 여전히 달성되어야 하는 목표였다고 할 수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추정 통계의 따르면 1959년도에는 밀이나 밀가루를 4만 2,000천 톤 수입, 쌀을 1만 9,800 톤 수출, 1961년에는 똑같이 48만 톤 수입, 2만 5,100 톤(쌀: 2만 2,500 톤, 옥수수: 2,600 톤) 수출, 1962년에는 9만 9,900 톤 수입(밀: 9만 4,900 톤, 옥수수: 5,000 톤), 1만 3,200 톤 수출(쌀: 300 톤, 옥수수: 1만 2,700 톤)했다. 식량 자급의 토대가 이루어졌다고 한 1961년에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보다 가격이 비싼 쌀을 팔아 값싼 밀을 파는 구조로 되어 있었지만, 1963~64년도에는 쌀의 수출은 제로가 된다.⁵¹⁾ 쌀의 작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쌀농사와 관련해서는 1963년 10월 내각은 “1963년 농촌 경리 부문의 앞에는 곡물 500만 톤 고지 점령으로 달성한 성과를 계속 견지, 광고화하여 1964년에는 60만 정보의 논 면적을 확보하고 30만 정보에 밭벼를 심어 공화국 전체 인민이

49)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2차 확대 전원 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1961. 12.1.

50) 『로동신문』, “1962년도 인민 경제 발전 실행 총화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의 보도”, 1963. 1.17.

51) 쌀 수출은 1965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고 있다. FAO Trade Yearbook의 각년도 통계의 의지, Lee & Scalapino, op. cite, pp. 1126~7에도 수록. FAO 측에 의하면 이 통계도 추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사용에는 주의를 요한다고 한다.

이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롭고 높은 고지를 점령해야 할 전투적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고 결정했다.⁵²⁾ 옥수수의 증산에 기초한 식량 증산에 한계가 보여 오히려 양이 많고 값이 싼 식량을 수입하기 위해 값이 비싼 수출용 쌀의 증산을 꺾겠다는 농정의 전환이었다. 전체 인민에게 이밥(쌀밥)을 먹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북한 농정의 염원이기는 하지만 당시로서는 당장의 실현을 내다 본 것은 아닌 단순한 명목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1963년의 곡물 생산량 목표에 대해서는 1962년 12월 16일 당중앙위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이미 점령한 알곡 500만 톤 고지를 공고히 견지하면서 벼수확을 더욱 증가시켜 곡물 생산의 질적 구성을 높이고 특히 밭벼의 면적을 확장하여明年에는 15만 정보, 1964년에는 30만 정보에 도달시킬 것”을 결정했다.⁵³⁾ 양적 목표가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정해진 것은 이 해가 처음이었다. 이미 옥수수를 쌀농사로 전환하는 정책이 시작된 것이다. 이 해의 실적에 대해서는 “농촌 경리의 불적·기술적 토대가 강화되고 선진 영농기술이 광범위하게 보급된 결과 기후 조건이 매우 불리했지만, 농업 생산에서는 유례가 없는 대풍작이 이루어져 알곡 500만 톤 고지가

더욱 공고화되고 벼의 생산이 대대적으로 증가했다”고 발표되었다. 벼의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48만 톤이 증가, 곡물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1%에서 58%로 높아졌다고 밝혀졌다.⁵⁴⁾ 전후 문맥으로 보아 500만 톤의 양적인 목표가 달성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1964년 농업 부문의 과제에 대해서는 1963년 9월 6일 당중앙위 제4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알곡 특히 벼의 증산을 위해 논 면적을 확장하고 그것을 62만 정보 이상으로 도달케 하여 당위당 수확고를 높이고 이모작과 간혼작을 광범위하게 실시할 것, 토지를 개량하고 치산 치수 사업을 전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⁵⁵⁾ 그런데 1964년의 경우 어떠한 양적 목표도 제시되지 않았다. 1964년 실적에 관해서는 “장마가 오래 계속되어 일부 지방에 강한 태풍의 피해가 있었지만, 알곡 생산에서 1963년 수준을 확고하게 견지”하였으며 6만 정보의 논벼착부 면적이 확장되고 곡물 총과종 면적에서 벼의 비중이 3.2% 증가했다고 발표하는 데 그쳤다.⁵⁶⁾ 1963년도 수준을 견지했다는 것은 양적 수준에서는 1962년부터 3년 연속으로 담보 상태

54) “1963년 인민 경제 발전 실행 총화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 위원회 중앙통계국의 보도”, 「로동신문」, 1963. 1.17.

55) “당중앙 위원회 제4기 제7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1963. 9.6.

56) “1964년 인민 경제 발전 계획 실행 총화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의 보도”, 「로동신문」, 1965. 1.16.

52) 「로동신문」, 1962. 10.20.

53) 「로동신문」,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1962. 12.16.

에 있음을 시인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이 해의 발표가 마지막으로 1965년 이후는 곡물 생산에 관해서는 목표도 실적도 포함해서 어떠한 숫자도 발표되지 않았다. 생산량을 엿볼 수 있는 단서는 일체 외부에 공표되지 않게 된다. 중소 분쟁의 확대나 한일 국교수립의 움직임, 남한에서의 군사 정권의 성립 등 대외 정세의 변화에 대응하여 1962년도부터 개시된 국방·경제 병진 노선에 의한 경제의 군사화에 따라 중요한 통계를 발표하지 않게 된 측면도 작용했겠지만, 과도한 목표 설정과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부리한 통계 조작을 거듭하는 방식이 이미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기도 하다.

곡물 통계와 농업으로부터 공업으로 경제 잉여 이전의 문제

북한의 공식 곡물 통계에서 결정적으로 빠져 있는 것은 곡물 수매량과 곡물 가격이다. 이 두 숫자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곡물 가격이 상당한 저가격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 숫자가 공표되지 않는 한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농업으로부터의 경제 잉여가 어느 정도 추출되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방법은 없다. 이 문제는 구소련이나 중국 연구에 있어서도 오랜 기간 생점이 되어왔으며 아직 완전한 결론은 내려질 수 없는 상태에 있다.⁵⁷⁾

국내의 북한 연구에서 이 문제는 지금까지 구체적인 수준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⁵⁸⁾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북한 문헌은 거의 없으나, 1957년 7월 2일 과학원 경제법학연구소의 주최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치 법칙과 가치 형성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그 일부가 「경제건설」誌에 게재되었기 때문에 판단의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이 토론회가 열린 배경은 1954년 말에 실시하려 했다가 동민의 반발에 부딪쳐 중단된

57) 구소련의 경우에 대해서는, J. Miller, "Soviet Rapid Development and the Agricultural Surplus Hypothesis," *Soviet Studies*, Vol. 22, No. 1, July 1970, J. Miller & A. Nove, "A Debate on Collectivization: Was Stalin Really Necessary?", *Problem of Communism*, Vol. 25, July-August 1976, M. Ellman, "Did the Agricultural Surplus Provide the Resources for the Increase in Investment in the USSR during the First Five Year Plan?", *The Economic Journal*, 85, Dec. 1975를 참조. 중국의 경우에 대해서는, 中兼和津次, 「中國における農業集團化政策の展開」, 1, 2, 『一橋大學研究年報』, 『經濟學研究』, 31, 32, 1991, 1992, 山内一男, 「中國經濟近代化への摸索と展望」, 『中國の經濟轉換: 岩波講座現代中國』, 第2卷, 岩波書店, 1989年, 古澤賢治, 「中國經濟の歴史的展開: 原着から改革・開放へ」, 이재은 역, 『중국 경제의 역사적 전개』, 한울, 1995.

58) 경제 잉여의 추출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의 경제 발전 방식과 관련해서 농업 집단화에 대한 성격 규정을 모색한 글로서, 김연철, "북한식 발전모형: 역사적 형성과 구조적 한계", 『1995년 한국 정치연구회 심포지엄 발제 논문』.

곡물의 국가적 수매가 1957년부터 다시 시행되게 되었던 데 있다. 1957년부터 곡물 수매는 집단적 수매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었고 현물세 징수 사업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었다. 이러한 조치는 대량으로 일시에 집단적으로 진행되는 수매는 지방 경리성에서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종래 소비 조합에서 관할하던 수매 사업의 대부분을 지방 경리성으로 이관하고, 나머지 소량의 개별적 수매만을 소비 조합이 연간을 통해 수시로 행하도록 한 것이다.⁵⁹⁾

우선 토론회 발제자의 한 사람인 정태식의 입장은 「경제건설」誌 1957년 10월호에 게재되었다. 그는 “현 단계에서 수매 가격은 가치 이하로 제정되어 농민이 생산한 순소득의 일부가 공업 발전을 위해 끌어들여져야만 한다. 현물세가 징수되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서 수매 가격은 신축성을 갖고 조절함으로써 노동 동맹을 강화하고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⁶⁰⁾ 뒷부분의 표현에서 보면 수매 가격을 비교적 높이 설정하려는 입장이었다고 보여지지만 그 이상 깊숙한 내용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의 정치적 경력 이외에도 당시의 지배적 분위기가 이 이상의 선을 넘을 수 없는 한계로 작용했

다고 여겨진다. 다만, 농업에서 공업으로의 소득 이전은 당연한 전제가 되어 있다.

다음으로 또 한 사람의 발제자인 남춘화의 입장이 「경제건설」誌 1957년 11월호에 게재되었다. 남춘화는 “사회주의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 법칙의 요구에 의거하여 가격을 가치로부터 계획적으로 배리시킬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국가는 수매 가격을 제정할 때 농업에서 조성된 순소득의 일부를 전인민적 수요를 위해 동원할 목적으로 수매 가격을 가치보다 낮게 설정할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가 농촌에서 농산물을 수매할 때 각종 수매 가격의 평균 가격이 가치보다 낮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업에서 조성된 순소득의 압도적 부분”이 “주로 현물세를 통해 국가에 인입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현물세 수입만으로는 사회주의 현 단계에서 경제 발전의 요구에 응한 순소득의 분배는 만족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여기서 금후 수매 가격을 통해 그 순소득의 재분배를 보충적으로

60) 정태식, “계획 가격 형성과 관련된 몇가지 문제”, 「경제건설」, 1957. 10, p. 81. 경성제대 조수 출신으로 이재유사건에 관련, 투옥되었다가 출옥 후 경성공고부의 일원이 되었던 정태식은 인공경제부장 대리, 민전중앙위원, 남포당조사부장을 역임했다. 그는 1956년에 개최된 제3차 당대회에서 박헌영을 개인 숭배의 장본인으로 비난하는 산 증인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후는 학자의 길을 걸으면서 몇가지 중요한 저작을 남기고 있다. 「정치경제학독본(사회주의편)」,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우리 당에 의한 속도와 균형문제의 창조적 해결」,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등.

59) “곡물 행정은 협동 단체보다 국가가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되었다. 김윤중, “1957년 곡물 수매의 성과적 보장을 위하여”, 「경제건설」, 1957. 10, pp. 37~41.

진행할 대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서 1957년 6월경 곡물 수매 가격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국가 수매에 열성적으로 응했던 것은 당과 정부의 인화 정책이 옳았던 증거라고 저가격 정책을 옹호하면서 “금년도의 농산물 수매 가격이 작년도보다 낮게 정해질 것은 의심할 수 없다……앞으로 농산물의 수매 가격은 계속 내릴 수 있다. 국가의 재정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 공업의 발전한 현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농산물 가격을 계속 높이려는 경향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⁶¹⁾ 당지도부의 정책적 입장을 대변하는 주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곡물 수매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구소련이나 인민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실시되고 있는 정책으로서 “알곡의 국가 납부는 ① 잉여 알곡의 전량,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전쟁이나 흉년 등) 필요 알곡의 일정 부분까지의 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② 이는 가격을 지불함에 있어서 증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하는 일반적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전제가 되어 있었고 “농업은 공업의 복구, 건설을 위한 자원을 알맞은 규모로 공급해야 한다”는 사고가 당연시되고 있었다.⁶²⁾ 이러한 경향은 연안계나 구소련계 등 반대파가 숙청됨으로써 경제 노선을 둘러싼 이견이 제거되

면서 지배적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류가 당의 공식 노선이었음을 김일성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1964년 2월 25일 당중앙위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의 명의로 공표된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 분제 테제” 속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과거에 낙후한 농업 국가였던 나라에서는 혁명이 승리한 후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해 농촌에서 일정한 기간 일정한 자금을 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에서 현대 공업을 장려하기 위한 농민의 자금 지출은 전사회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농촌 경리의 장래 발전과 농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이다”고 쓰여 있다.⁶³⁾ 이 테제에서는 도시와 농촌과의 차이, 노동 계급과 농민 계급과의 차이를 없애는 문제를 논하고 있고 가까운 장래에 농업 현물세의 폐지를 예정하고 있으며 공업에서 농업으로의 지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종래의 정책이 어느 정도 전환되었는지를 입증하기는 불가능하다. 국가가 곡물 수매를 통하여 잉여 곡물의 전량을 수중에 장악한 이상 현물세의 폐지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곡물 수매 가격 및 공업 제품과 농산물과의 가격 비율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일체 발표되지 않기 때

61) 남춘화, “현 시기에 있어서 농산물 수매 가격 제정과 관련된 몇가지 문제”, 『경제건설』, 1957. 11, pp. 72~75.

62) 김춘점, “공화국 북반부에 있어서 농촌에 대한 조세의 여러 특성과 그 상당한 이용”, 『김일성 종합대학학보』, 제5호, 1958. 9, p. 5.

63) 『로동신문』, 1964. 2.26.

〈표 1〉 곡물 생산량 통계의 변동(1957년의 수정·확정까지)

(단위: 만 톤)

년도\시점	1957년 2월	1954년 10월	1955년 1월7일	1955년 1월25일	1956년 2월
1945년		218.7			
1946년	189.8	199.8			
1947년	206.9	217.8			
1948년	266.8	280.9			
1949년	265.4	279.5			
1950년	?	?			
1951년	226.0	260.1			
1952년	245.0	293.9			
1953년	232.7	328.8	274.1		
1954년	223.0		294.1	282.3	
1955년	234.0				252.3
1956년	287.3				

문이다.

이처럼 곡물 수확량 통계의 변동 과정을 추적해 보면 북한은 전후 3개년 경제복구 발전 계획이나 제1차 5개년계획을 통해서 농업으로부터 상당 부분의 경제 잉여를 추출해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곡물 수매 사업과 관련된 언술들을 분석해보면 이것은 당시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 당연시되고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북한의 경제 발전 노선 및 농업 집단화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열정적인 의미를 띠고 있다.

〈표 2〉 곡물 생산량 통계의 변동(확정 이후)

1957년	320.1
1958년	370.0
1959년	340.0
1960년	380.3
1961년	483.0
1962년	500.0
1963년	500.0
1964년	63년도 수준

자료: 1956년까지의 수정·확정된 생산량에 대해서는 “1954~56년 전후 인민경제 복구발전 3개년계획 실행총화에 관한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 보도”, 「경제건설」, 1957. 3. 및 「조선중앙년감」, 1958년판, p. 196. 기타의 통계에 대해서는 이 글 속에서 기술된 해당 부분의 문헌을 참조.

약간의 보족

이 글에서 인용된 곡물 통계가 나타나고 있는 김일성의 발언은 당시 공표된 원문을 사용하였지만, 이후 간행된 선집 속에 수록된 같은 문헌에서는 분제의 숫자가 삭제되거나 수정된 경우가 있다. 또한 1980년판 「김일성 저작집」 안에는 당시 공표되지 않았던 주요 회의에서의 김일성의 발언들이 몇가지 처음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경우에는 문제된 숫자가 이 글에서 추적한 바의 당시 통용되던 숫자가 아니라 전부 1957년 이후 수정·확정된 숫자로 바뀌어 있다. 이렇게 주후에 숫자의 개편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은 북한 당국이 이 점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며 오히려 이 글의 선문을 보강하는 재료가 된다고 하겠다. 여기서는 지면관계상 개편된 숫자의 문제점을 입증하는 작업은 생략하고 단지 해당 자료들을 열거하는 데 그치기로 한다.⁶⁴⁾ **약**

〈참고문헌〉

- 김일성,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진술한 보고 (1952년 12월 15일)”, 「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1967년판, 「김일성저작집」, 제7권, 1980년판.
- 김일성,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행한 결론(1953년 12월 8일)”, 「김일성저작집」, 제8권, 1980년판.
- 김일성, “농촌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대책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행한 결론(1955년 2월 2일)”, 「김일성저작집」, 제9권, 1980년판.
- 김일성, “사회주의 현 단계에 있어서 당 및 국가 사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행한 결론(1955년 4월 4일)”, 「김일성선집」, 제4권, 1960년판.

64) 참고, pp. 440~446에서는 주후 개편된 숫자들을 당시 통용되던 숫자와 비교, 대조하여 의문점을 지적·정리하였다.